

세계 주목 속 한류 전파시키는 우정 IT

글 | 이용석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 팀장

1. 전 세계적인 우정 사업의 IT화 추세

최근 세계 우정사업은 우편시장 개방과 민영화 추진 등 급격한 환경변화를 맞아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원가절감과 업무효율성 강화를 위한 우편자동화와 정보화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우정현대화 사업의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캐나다·프랑스·일본 같은 선진국의 경우, 우편시장 개방과 민영화 추진에 따라 I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우편 서비스 창출과 작업 시스템의 IT화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도 우편시스템의 자동화 및 전산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속에서 특히 구소련 및 아시아지역의 우정청들이 통신 IT 분야의 선도국가인 한국의 우편 및 금융 시스템에 관심을 기울였고, 급기야 자국의 우정 현대화 사업에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벤치마킹함과 동시에 현대화 계획 수립에 전문 컨설팅을 요청해 오고 있다.

2. 국내 우편사업 부문 IT화 추진현황 및 국제사회 평가

한국은 이메일(e-mail), 모바일 등 편리하고 강력한 대체 통신수단이 일반화됨에 따라 2003년을 기점으로 통상우편이 매년 5% 내외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소포와 국제특급(EMS) 시장은 민간사업자들과의 치열한 경쟁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편사업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우정은 첨단 IT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우편업무 프로세스를 혁신시키고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세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으려 했다.

우선 한국우정은 2001년 정보전략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부터 2004년에 걸쳐 3년간 총 162억원을 투입하여 웹기반의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을 구축했다.

PostNet은 접수·운송·구분·배달에 이르기까지 우편물류업무를 지원하고 고객관계관리(CRM) 기능과 실시간 종추적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이와 함

계 한국우정은 인터넷 우체국(ePOST)시스템을 야심차게 추진했다. e-POST에서는 전국 각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 특산품을 생산자로부터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쇼핑몰이 구축했으며, 우체국 택배와 EMS의 예약 접수, 우편물 종적 조회, 우표 판매 등 각종 우편 서비스를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한국우정의 최종 전략적 목표는 u-Post의 구현, 즉 우체국 이용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다. RFID 기술을 우편물류에 적용시켜 현재 바코드 시스템을 대체함으로써 우편물류시스템의 실시간화를 앞당기고 GIS/GPS 및 모바일 기술 등을 응용하여 우편 소통 및 장애상황 그리고 운송차량을 실시간 추적하고 통제할 수 있는 물류종합관리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한국은 매년 개최되는 세계 우정박람회(Post-Expo)와 만국우편연합(UPU) 주관의 국제회의 등을 통해 그간 우리가 추진해 온 우정 IT정책 등을 소개하기 시작하였고 해외 우정사업자들은 한국우정 IT기술과 우편장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던 차에 지난 5월초 영국의 세계적인 우편건설사인 Triangle사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세계우편 시상식(World Mail Awards)에서 전체 10대 부문 중 전자상거래와 기술 등 2개 부문에서 한국 우정의 인터넷 쇼핑몰과 우편물류시스템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세계우편상은 매년 우편분야에서 고객만족, 기술 혁신, 전자상거래 등 총 10개 분야에서 우수 우정청 및 우편 관련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우편분야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손꼽힌다.

이어서 우편물류시스템은 8월초 공공기관 최초로 IT분야 대표적 국제품질 인증지표인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rgration) 레벨 3를 획득했다.

CMMI는 미국 카네기멜론 대학 S/W 공학연구소에서 개발한 모델로서 S/W 품질 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축과

운영,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능력 등 시스템 전반에 걸쳐 종합 평가하는 국제 공인 지표로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CMMI 레벨 3 획득은 웹 기반의 우편물류시스템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것이다.

3. 우정 IT 분야의 민간 산업계 태동

국내 우정 시스템 중 무인우편창구 시스템, 집배용 PDA, 라벨 프린트기 등은 기술 및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다.

특히 우편 무인창구 시스템은 세계적인 물류회사인 DHL의 높은 수준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 납품 예정이며, 집배용 PDA와 통합프린터 및 라벨 프린터 등도 유럽 지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우편물류통합시스템은 선진 우정청들과는 달리 웹기반으로 구축되어 사용이 편리하고 실시간 추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게 장점으로서 LG CNS가 이를 모뎀화 하여 아시아 시장에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우정 IT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남아 우편시장과 유럽 등에 대한 마케팅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4. 해외 진출관련 애로 사항

많은 우정 IT 업체들이 개별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워 해외 진출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통신 분야와는 달리 우정 분야는 나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 우정청 등의 국가기관이 주요 고객이다.

따라서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우정청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시장 개척이 용이한 데 지금까지는 주요 우정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주요 고객들인 해외 우정청 관계자들에게 제품 홍보 및 기술 소개가 필요한 데 해외 우정청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미흡해 업체들이 우정청 주요 결정권자 및 담당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으로 한국의 우정산업체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 해외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었다.

5. 국내 우정 IT업체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체제 구축

◆지원 전담반 신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이와 같이 기업체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2월 '우정 IT기업체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2006년 3월에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팀에 수출지원 전담반을 신설하여 우정 IT기업체의 수출지원과 관련된 협력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다.

전담반은 해외 우정청에 대한 정보 DB를 구축하고 우정청간 협력 창구를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격월제로 산/연/관으로 구성된 '우정 IT업체 수출지원협의회' 개최 및 우정 IT 협력단 구성 파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정 IT기업체 수출 지원 협의회 운영

우정 IT 기업체, 한국 전자통신 연구원(ETRI), 우정사업본부 등 산/연/관 공동으로 수출 증진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정례 회의체인 '우정산업체 수출지원협의회'를 만들어 격월제로 개최한다. 지난 '05. 12월 이후 8월까지 5차례 개최하면서 수출지원업무와 관련된 진행결과를 확인하고 해외 진출방안에 대한 우정 IT기업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기업체의 수출관련 수요를 충족시키고 도출된 주요사항을 우정IT 수출지원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국내 우정 업체 제품에 대한 전자 카탈로그 구축

우정 IT기업체의 상품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 전자카탈로그의 일종인 웹기반의 'e-Catalog' (postalit.epost.go.kr)를 구축하고 영문으로 작성한 회사정보, 상품정보(텍스트, 이미지 정보, 스펙 등) 및 연락처 등을 소개하고 회원관리를 통해 상품을 검색한 사람들에게 기업체에서 활용하게 함으로써 우정 IT기업체의 적극적인 마케팅 자료 역할을 하고 있다.

◆우정 IT 협력단 파견

우정 IT협력단은 수출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우정IT기업체의 해외 수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차로 지난 2006년 5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을 대상으로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사업단장을 협력단 단장으로 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우정IT기업체 등 산/연/관 14명으로 구성된 협력단을 파견하여 우정IT기업체의 수출협력 지원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협력단은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 우정청의 주요 정책 결정권자와의 수출협력 채널을 확보하고 기업체의 제품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우정정책과 우정 IT 기술을 홍보하는 등 커다란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해외 우정청 우정 현대화 컨설팅 지원 사업

한편 우정IT기업체의 적극적인 해외 수출지원을 위한 타깃 마케팅의 일환으로 '해외 우정청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과 몽골 우정청의 요청으로 우정사업본부의 전문가를 파견시켜 해당국의 우정현대화 프로젝트 수립에 우편 자동화 및 전산화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6. 결어

상기와 같이 2006년도 상반기 동안 우정IT기업체 주요 수출지원 성과를 거두었지만 협력단 활동에 있어 아직까지 방문국에 적절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과 구매담당 또는 로컬파트너와의 1:1 상담기회 제공 마련 등이 아직 미흡한 상태이며 이는 향후, 우정IT기업체의 수출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감에 있어서 보완시켜 나가야 할 사항이다. 이외에도 우정사업본부는 우정 IT기업체 홍보의 장 마련 지원, 해외 우정청과의 수출협력 채널 확보, 해외 우편현대화 추진사업 및 실무담당자 등에 대한 정보(특히, 발주 등) 파악과 제공, 실무자간 방한 초청 또는 수출 희망국에 전문가 파견을 통한 컨설팅 수행 등 다양한 수출지원 업무를 전개할 계획이다. **K**